금주의 법구–〈법구경〉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27일)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조계종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으로, 향후 4년간의 종단 로드맵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회 소통 강화로 불교중흥 이끌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첫 신년회견… 4년 로드맵 담아
'조계종 명상프로그램' 개발 천명
사찰 순례길 통한 불교문화 향유
요양병원 인수해 승려복지를 강화
'천년을 세우다'로 성장동력 결집
상월 순례 연계 韓–印 교류행사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2023년 신년기자회견 첫 일성은 '사회적 소통 강화'였다. 조계종 표준 선명상 프로그램과 사찰 순례길 개발 보급을 통해 불교 수행과 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으로, 향후 4년간 종단 로드맵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진우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사회적 소통 강화 △승려복지 강화 △한국불교 문화 자긍심 고취를 발표했다.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는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종단 내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과 사찰 순례길을 개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대사회 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국내외 수행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단 내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조계종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 종단이 설립하는 명상센터에서 자신의 단계에 맞는 수행프로그램을 체험하면 국민 정신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사찰 순례길마다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코스와 주변 경관, 생태 · 문화자원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제작하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의 현장마다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확대 강화하겠다"면서 "사회 실천 활동과 관련한 종단 기구와 위원회를 정비해 현장에서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들의 노후 안정은 수행공동체의 안정"임을 천명한 진우 스님은 '승려 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승려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님은 "지난해부터 '승려 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병원 개원식을 봉행할 계획"이라며 "종단과 교구, 동국대 의료원, 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의료적 보살핌이 필요한 스님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우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사업을 통한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강조했다. '천년을 세우다' 사업은 과거 천년과 미래 천년을 이어내는 것을 골자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교구특성화, 미래세대 인재 양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진우 스님은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마애부처님이 일어서면 국민이 평안하고 국운이 융창한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종단의 제안에 따라 각계가 호응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기술적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명상과 미래세대 인재 양성, 교구 특성화 연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다"면서 △교구 특성화 전략 △범종단적 출가 장려 △전통문화 관련 국제제도 개선 △전통문화 홍보 강화 △불교장례문화 확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승가교육 확립 △포교콘텐츠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종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사찰문화재관람료 관련 지원 예산 421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진우 스님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국민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위해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대해서는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주요 스님과 사부대중 108명이 부처님 성지 1167km를 43일에 걸쳐 직접 도보로 순례하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평가하며 "순례가 안전하게 원만회향돼 인도 부처님 성지를 잇는 '붓다로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3월 20일 인도 기원정사에서 열리는 순례 회향식에 직접 참석할 계획을 밝히며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델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주인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3면〉

질의응답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 목표"

신년회견 질의응답서 밝혀
포교 강화 통해 출가 증진
"서울 명상센터 부지 확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사찰문화재관람료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찰문화재관람료 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진우 스님은 "국가문화재는 본디 국가가 당연히 보호관리할 문화유산이지만, 스님들이 신앙적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이제는 국가도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5월부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찰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가자 감소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포교 활성화'와 '승려복지 강화'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교를 통해 젊은 세대에 불교적 관심을 늘리고, 승려복지를 통해서는 완벽한 수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불교를 알리려고 한다. 군포교를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계층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종책을 펼치겠다"면서 "승려복지 강화를 통해 완벽한 수행환경을 조성한다면 출가자 감소에 대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명상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서울권 명상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모든 천년고찰이 사실은 명상센터"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다만 시대에 맞춰 접근성이 좋은 명상센터가 필요해 우선 서울도심권에 명상센터를 만들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명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서울도심권 명상센터는 현재 부지가 확보됐고,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제주와 전라, 경북권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종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탄소중립을 위해 '1사찰 1과제' 실천 등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토의 산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찰림을 불교계가 잘 보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와 정부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